

## 호주, 민영 건강보험 개혁 사례

문혜정 연구원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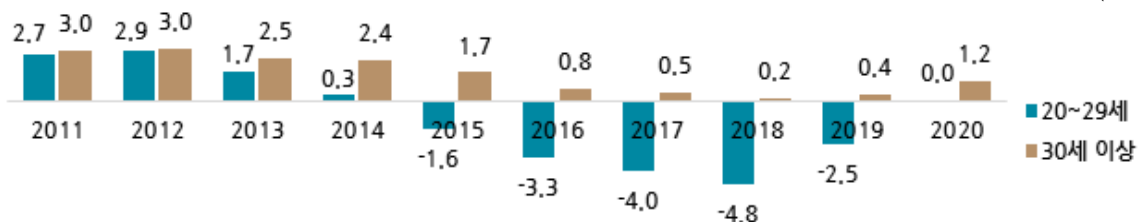
호주 정부는 민영 건강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높은 보험료 인상률이 지속되며 민영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됨. 민영 건강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의료보철물에서의 보험금 누수가 지목되었고, 이에 호주 정부는 2016년부터 민영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료보철물 급여 목록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음. 동 제도 개선은 민영 건강보험료의 주요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항목의 관리 체계를 재정비한 사례로, 결과적으로 민영 건강보험료를 관리하여 민영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강화함

○ 호주 정부는 공·사 건강보험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영 건강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높은 보험료 인상률이 지속되면서 민영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됨

- 호주 정부는 민영 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해 ① 민영 건강보험 미가입 고소득자에 대한 공적 건강보험료 할증<sup>1)</sup>, ② 30세 이후 가입 시 민영 건강보험료 할증<sup>2)</sup>, ③ 연령 및 소득에 따른 민영 건강보험료 지원, ④ 18~29세의 젊은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최대 10% 할인 등의 제도를 시행하여 민영 건강보험 가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호주의 민영 건강보험은 자율가입 상품이지만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보건부에서 관리·감독하며, 민영건강보험법 (Private Health Insurance Act 2007)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함
- 그러나 민영 건강보험료가 2002~2016년간 매년 평균 6.1%씩 인상됨에 따라 젊은 인구의 민영 건강보험 이탈이 심화됨(〈그림 1〉 참조)
  - 호주의 민영 건강보험은 지역요율을 적용하여 건강상태,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장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민영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젊은 인구의 가입 유지가 중요함

〈그림 1〉 호주 민영 건강보험 가입자 수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APRA(2021. 7), "Private health insurance annual coverage survey"

- 1) 고소득자가 민영 건강보험의 병원서비스 보장(hospital cover) 상품에 미가입한 경우 공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의 기본보험료(2%)에 1~1.5%를 추가로 부담하는데, 이를 메디케어 추가 보험료(Medicare Levy Surcharge)라고 함
- 2) 30세 이후에 민영 건강보험의 병원서비스 보장(hospital cover) 상품에 가입할 경우 미가입 기간 1년당 2%씩(최대 70%) 가산하여 10년간 보험료를 할증하는 평생건강보장제도(Lifetime Health Cover)를 시행해 젊은 사람들의 민영 건강보험 가입을 장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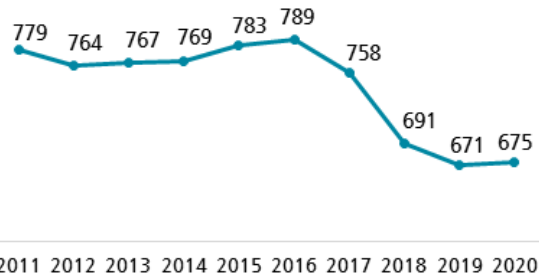
- 민영 건강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급보험금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보철물(Prosthesis)<sup>3)</sup>에서의 보험금 누수가 지목됨<sup>4)</sup>
  - 호주 민영 건강보험회사는 민영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보철물 급여 목록(Prostheses List)에 등재된 의료보철물에 대해서 목록에 명시된 최소 금액(minimum amount of benefit)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함
  - 그러나 의료보철물 급여 목록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수준이 공립병원 의료보철물 구매가격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보험금 누수가 발생함
    - 예를 들어, 서호주 공립병원은 이식형 심장제세동기를 A\$19,000에 구입한 반면, 의료보철물 급여 목록에 제시된 보험금은 A\$52,000이었음
- 호주 정부는 민영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민영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료보철물 급여 목록 개혁(Prostheses List Reform)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2월, 호주 정부는 의료계, 의료기기업계, 보험회사, 소비자 및 보건부로 구성된 ‘민영 건강보험 의료보철물 급여 목록 개혁에 관한 산업실무그룹’을 구성하여 보험금 누수가 심한 일부 항목들의 보험금을 인하함
    - 2017년 2월부터 심장 이식 장치 및 인공수정체 관련 의료보철물의 보험금을 10% 인하하고, 고관절 및 무릎 교체 관련 의료보철물의 보험금을 7.5% 인하함
  - 2017년 10월, 호주 정부는 호주의료기술협회(MTAA)와 협의<sup>5)</sup>하여 전체 의료보철물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두 차례 인하함
    - 2018년 2월부터 전체 목록에 대해 보험금을 2.5~20% 인하하고, 2020년 2월부터 추가로 2.5~10% 인하함
  - 2021년 7월, 호주 정부는 2022~2025년 동안 의료보철물 급여 목록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보험금을 공립병원의 의료보철물 구매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해나갈 것임을 밝힘
- 정부는 의료보철물 급여 목록 개혁으로 인한 민영 건강보험회사의 예상 보험금 감소분을 매년 보고받고 있으며, 이를 보험료 인하에 반영하도록 함
  - 민영 건강보험회사는 매년 보험료 변경 신청 시기(premium round) 때 의료보철물 급여 목록 개혁으로 인한 예상 보험금 감소분과 그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보고해야 함
    - 실제로 의료보철물당 지급보험금은 2016년 A\$789에서 2020년 A\$675로 감소함(그림 2) 참조)
  - 민영 건강보험료의 업계 평균 인상률은 의료보철물 급여 목록 개혁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2021년 동안 평균 3.5% 인상률을 보였으며, 2021년에는 최근 20년간 최저 수준인 2.7% 인상률을 기록함(그림 3) 참조)

3) 의료보철물은 심장박동기, 백내장 수술용 렌즈, 무릎 관절 교체 수술용 인공 관절 등 치료 목적으로 외과적 이식이 가능한 장치 또는 인체 조직으로 정의됨

4) Commonwealth of Australia(2017. 5), “Price regulation associated with the Prostheses List 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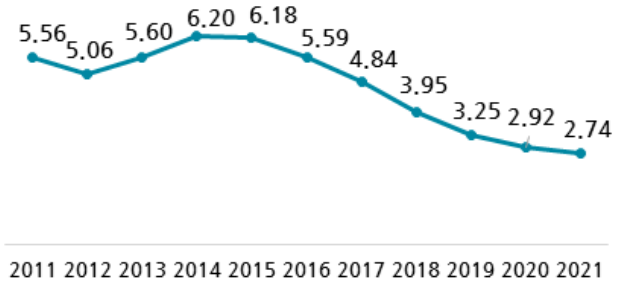
5) 의료기기 산업은 의료기기 가격을 재조정하여 호주인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민영 건강보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정부는 의료보철물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재 빈도를 늘려(연2회 → 연3회) 의료기기의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천만 호주달러 규모의 의료기술 및 생명공학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의 의료기술 혁신을 지원함

〈그림 2〉 의료보철물당 지급보험금 변화 추이  
(단위: 호주달러)



자료: APRA(2021. 8), “Quarterly PHI statistics”

〈그림 3〉 호주 민영 건강보험료의 업계 평균 인상률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호주 복지부(2020. 12), “Historical premium increases by insurer”

- 호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 제도 개선은 민영 건강보험료의 주요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항목의 관리 체계를 재정비한 사례로, 결과적으로 민영 건강보험료를 관리하여 민영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강화함